

# 신안 김 양식 어가 친환경 국제인증 2종 동시획득

### 국내 최초...MSC·ASC 지속가능 해조류 이력 보증 유효기간 3년 압해읍 대천리 31.5ha...신안군 비용 지원 등 국제인증 확대 추진

신안 김 산업 진흥구역에 있는 김 어가가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2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획득했다.

신안군은 압해읍 대천리에 있는 31.5ha 규모 주식 김 양식장이 최근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MSC(해양관리협회의)와 ASC(수산양식관리협회의)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가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MSC와 ASC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속가능 해조류 국제인증이다. 독립된 심사기관이 엄격한 절차와 표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을 유지하는 것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국내 김 어가가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2종을 한 번에 획득한 건 처음이다. 앞서 장흥 김 양식장은 국제인증 2종 가운데 ASC 인증 1개를 받았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김 양식장의 국제인증 2종 취득을 추진해왔다.

지도읍 어리리에 있는 137ha 규모 부류식 김 양식장도 국제인증 2종 취득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이 획득한 MSC와 ASC 인증은 각각 자연산과 양식산 수산물의 지속가능성과 이력을 보장하는 친환경 상표이다. 수산물 생산 활동이 해

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국제인증제도이다. 수산물을 수입하는 해외 대형 유통업체가 주로 요구하는 인증이다. 이들 국제인증 상표를 단 수산물은 다른 상품보다 납품가가 15%가량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해양관리협회의(MSC-Marine Stewardship Council)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 어업규격을 제정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인증하는 상표를 부여하고 있다.

2010년 네덜란드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양식관리협회의(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는 해조류를 포함한 양식 수산물 10종에 대한 인증 상표를 주고 있다.

신안군은 오는 25일 군청에서 국제인증서 수여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 행사와 함께 인증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앞으로 국제인증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역 김 어가에 4500만~6000만원에 달하는 국제인증 비용의 80%까지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김 산업 진흥구역에 있는 양식장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2종(영국·네덜란드)을 동시에 획득하며 수출 경쟁력을 갖췄다. 신안 김 양식장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원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증은 1990년대 유럽에서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국내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김 어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인증 획득을 적극적으로 돕고 '수출김 전용단지'와 '김 산업 진흥구역' 등 신안만의 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에는 504어가가 9601ha에 달하는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 가공공장은 29곳(마른김 23곳·조미김 6곳)이 있다. 지난해 김 어가들은 물김 5만9500t을 생산하며 5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안군은 지난 3월 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김 산업 진흥구역(1118ha)에 지정되기도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명랑케이블카·해남공룡박물관 동시 이용땀 요금 25% 할인



명랑해상케이블카와 해남공룡박물관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최대 25%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명랑해상케이블카는 해남공룡박물관과 상호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케이블카 이용 시 2000원, 공룡박물관 방문 시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했다(20일 밝혔다). <사진>

또 이용일 하루전까지 구매 가능한 온라인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명랑해상케이블카와 공룡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의 대표 관광지인 자리매김한 명랑해상케이블카와 해남공룡박물관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여행이나 아이들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명랑해상케이블카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서 진도 망금산 정상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시설로 해남과 진도를 연결하는 전라도 여행지 추천 코스로 뽑히고 있다. 신비로운 울돌목의 회오리와 다도해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여행 코스이며, 서해안 최고의 일몰이 일품이다.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 박물관이다. 330만㎡ 규모의 야외공원과 공룡발자국 보호각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제격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영광 상사화 대학가요제 다음달 18일까지 참가자 모집

영광군이 '23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9월15~24일)를 앞두고 '영광 상사화 대학가요제' 참가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영광 상사화 대학가요제는 9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대학가요제에는 전국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개인·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우선 제출한 음원·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한 뒤 9월15일 열리는 2차 예선에서 16개 팀을 선발한다.

2차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다음날 최종 본선을 치른다. 1등에 뽑히면 상금 500만원을 받고, 2등 200만원, 3등(2개 팀) 각 100만원 등이 주어진다. 가요제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제 누리집(상사화축제.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조례 제정

### 체계적인 보존·관리 연구 지원

영암군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계기로 마한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9일 열린 영암군의회 300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영암군은 마한역사·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연구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 시행 계획 수립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연구·발굴·조사 지원 및 학술자료 축적 ▲마한역사문화 행사·축제, 관광자원화 지원 ▲마한역사문화 자원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영암군 시종면을 중심으로 2000년 전부터 고유한 마한 문화가 존재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따라 나왔다.

하지만 연구 성과와 발굴 조사 결과가 있어도 역사적 사실의 확산과 보존, 정비가 미흡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시 장사전략 교육 참여 소상공인 모집

### 8월 17일~9월28일 9차례 교육

목포시가 '장사 잘하는 비법, 신(神)의 장사전략'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 4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강단에는 '장사의 신'이라 불리는 김유신 외 사업 전문가가 선다.

그는 MBC 예능국 PD로 활동하면서 먹거리 방송 프로그램 겸담,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 총괄 담당으로 활약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상공인의 장사 전략과接客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가르쳐준다.

다음달 17일부터 9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업(7회)과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대비 특강(2회) 등 총 9차례 교육한다.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관광객 접촉 빈도가 높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종사자 등을 교육생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점업·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지역경제과(061-270-878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덕우도에 구축된 LPG 시설.

##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에 LPG 시설 구축

### 행안부 공모 선정...공급 시작

완도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생일면 덕우도 LPG 시설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스 공급을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료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및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구축한 사업이다.

올해 초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 총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69세대에 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형 LPG 저장탱크를 통해 장기간 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운송비용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연료 사용 환경이 마련됐다.

군은 현재 금당 울포, 청산 모서·모동, 보길 예작도에 LPG 시설을 구축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허동호 완도군 경제교통과장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소안 횡간, 청산 여서, 군외 사후도에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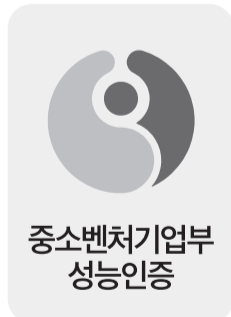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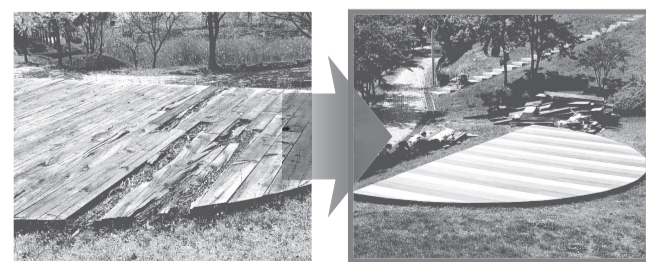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